

[와카미야의 東京小考]역시 전쟁을 싫어하는 일본인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
전 아사히신문 주필

7일 아사히신문에 실린 여론조사 숫자를 보고 한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동아일보가 다음 날 그래프와 함께 크게 소개한 바와 같이 한일 국민 대부분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일중 국민감정은 보다 험악하다는 사실이 제시되었기 때문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최근 상황에서 보자면 이것은 예상된 것으로, 우려할 일이긴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눈이 휘둥그레졌을까. 그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욕을 불태우는 헌법 9조 개정 에 대해 ‘노(No)’라고 한 일본인이 작년보다 7%포인트나 늘어난 64%로, 찬성 29%를 크게 웃돌았다는 사실이다.

9조는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등 평화헌법의 상징적 조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9조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데도 호의적이지 않은 숫자가 나왔다(찬성 29%, 반대 63%).

아베 총리는 주변 국가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지난달에는 무기 수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해온 일본 정부의 원칙을 크게 바꿨다. 지금은 역대 내각이 헌법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려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50%가 넘어 국회에서 자민당의 다수 지배에 흔들림이 없다. 한편으로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반중, 혐한 감정이 강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 개정과 국방군 등장을 기대하는 일본인이 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한국인의 눈에는 더더욱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다양한 우경화 현상을 보고 일본이 군사 국가로의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는 마음속에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랬던 만큼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나도 크게 힘을 얻었다.

9조 개정 반대론만 늘어난 게 아니다. “전후 체제를 바꾸고 싶다”는 아베 총리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일본은 진정한 독립을 완수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지만 국민의 대답은 “그렇다”가 19%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75%였다. 헌법도 전체적으로는 개정론이 많은 게 최근 추세였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역전됐다.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54%에서 이번에 44%로 감소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7%에서 50%로 약진한 것이다.

이러한 숫자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역시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총리의 복고적인 생각을 지지하기 때문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에 제동을 걸고 싶다는 심리임에 틀림없다. 일본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군사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본이 스스로 긴장을 높이는 것을 오히려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본인은 어쨌든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역시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도 나타났다. “만일 외국에서 공격받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20대에서는 ‘그렇다’가 13%, ‘그렇지 않다’가 79%였고 30대에서도 12% 대 78%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늘긴 했지만 70세 이상에서도 35% 대 53% 수준이다.

웬지 한심한 숫자인 것도 같아 이를 큰소리로 선전해야 할지 당혹스럽지만 일본인, 특히 젊은 세대의 ‘전쟁은 싫다’는 기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사람이 젊은 세대에 매우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참배를 지지해도 자신들은 신사에 모셔진 병사처럼은 결코 되고 싶지 않다, 전쟁은 이제 건너리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 그 해석법에도 또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의 대부분이 ‘개헌’을 앞세우는 총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한국인도 잘 알아주었으면 한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 전 아사히신문 주필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